

- 주요 뉴스: 미국 잭슨홀 미팅 개최 예정,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에 주목
 - 독일 중앙은행 총재, ECB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부동산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특별 대출 제공할 방침
 - 러시아 외교 관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종결을 위한 외교적 해결은 어려울 전망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연준의 지속적인 통화긴축 가능성 부각 등이 영향
 주가 하락[-1.2%], 달러화 강세[+2.4%], 금리 상승[+14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 지수는 역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0.8%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5주 만에 최고 수준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2.2%, 2.6%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전망 등이 반영
 독일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4주 만에 최고치

※ 원/달러 환율(주간) 1.8% 상승, 한국 CDS 상승

		8/19일	8/12일	전주말대비			8/19일	8/12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228.5	4,280.2	-1.21%	국채 금리 10y	미국	2.97%	2.83%	14bp
	유럽	437.36	440.87	-0.80%		독일	1.23%	0.99%	24bp
	중국	3,258.1	3,276.9	-0.57%	CDS 5y	한국	36bp	34bp	2bp
	일본	28,930	28,547	1.34%		중국	73bp	71bp	2bp
	한국	2,492.7	2,527.9	-1.39%	위험 지표	EMBI+	423	413	10bp
환율	달러지수	108.17	105.63	2.40%		VIX	20.60	19.53	5.48%
	유로화	1.0037	1.0259	-2.16%		WTI유	90.77	92.09	-1.43%
	엔화	136.97	133.42	-2.59%	원자재	구리	366.5	366.9	-0.11%
	위안화	6.8176	6.7428	-1.10%		금	1,747.1	1,802.4	-3.07%
	원화	1,325.9	1,302.4	-1.7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잭슨홀 미팅 개최 예정,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에 주목

- 8/25~27일(목~토) 전세계 주요 중앙은행 인사들이 참석하는 잭슨홀 미팅이 개최되며, 특히 26일(금) 연준 파월 의장이 연설에 나설 계획.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 다만 9월 FOMC와 관련해서는 되도록 언급을 자제할 전망
- NatWest Markets의 Kevin Cummins는 최근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파월 의장은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판단. 특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
- CNBC는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밝힐 것이며,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 증폭과 이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
- PIMCO의 Tony Crescenzi는 1970년대에 연준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금리를 인상하고 이후 경제 여건을 살피면서 일정 기간 금리인상을 멈추는 'stop go policy'를 시행했으나, 이번에는 물가 오름세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금리인상을 지속하는 공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한편 최근 전문가들은 9월 FOMC에서 0.50%p 인상과 0.75%p 인상 가능성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인식. 다만 8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면, 연준 인사들이 금리인상 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추정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독일 중앙은행 총재, ECB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

- 나겔 총재는 에너지 공급 여건이 악화될 경우 독일에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이에 대응하여 금리인상을 계속해야 하며,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 2% 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 독일 재무부,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공급망 혼란 등으로 경제 전망은 부정적

- 8월 경제보고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 부족, 공급망 혼란,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

■ 독일 7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1949년 이후 최고치.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이 원인

- 해당 물가는 전년동월비 37.2% 급등하며 집계가 시작된 194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전월비 기준으로도 5.3% 올라 사상 최고치. 이번 결과로 시장에서는 8월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이 9%를 나타내 7월(8.5%)에 비해 오를 것으로 추산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부동산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특별 대출을 제공할 방침

- 여러 정책은행을 통한 대출을 부동산 매입자에게 제공하여 부동산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종료를 유도할 계획. 최근 부동산 건설 부진 등이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당국의 관련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
-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위험에 대비하여 중소은행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아울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험 예방을 강화하고 중소은행의 자본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한편 국무원은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폭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 이에 맞춤형의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경제 성장 촉진을 유도하겠다고 강조

■ 러시아 외교 관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종결을 위한 외교적 해결은 어려울 전망

- Gennady Gatilov UN 영구 대표는 현 상황에서 외교적 방법에 의한 전쟁 종식 가능성은 없다고 발언.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은 어려우며, UN 역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중재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

■ 골드만 삭스와 노무라, 중국의 금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 골드만 삭스는 금년 중국 성장률 전망을 낮췄고(3.3%→3.0%), 노무라 역시 유사한 전망(3.3%→2.8%)을 제시. 노무라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신종 코로나 감염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8월 경제활동 지표들도 7월보다 부진하다고 지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8/19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6월 경상수지(억유로): 42.4, 5월(-69), 예상치(-)

■ 주요 경제 이벤트(8/22 현지시각 기준)

-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결정, 독일 중앙은행 월간보고서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주가, 기술주 상승세 둔화로 실물 경제와의 괴리는 축소될 전망 - WSJ

(Stocks Are Divorced From the Economy—but Won't Be Forever)

- 최근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 금년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19년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나 주가는 33% 높은 수준에 위치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전개. 이러한 불일치는 양호한 기업실적 지속 기대에 의한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최근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실적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로 발생한 착시 현상. 또한 실물경제와 주가의 괴리를 증폭시켰던 기술주의 성장세도 경쟁 격화와 규제 강화로 점차 둔화되고 있어, 이러한 괴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중국 제조업,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국제적 위상이 제고 - WSJ

(Pandemic Bolsters China's Position as the World's Manufacturer)

- 미국과 동맹국들은 국가 안보, 공급망 취약성 문제 등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을 경계. 그럼에도 '21년 전세계 재화 수출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19년 대비 확대(13%→15%).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산 소비재, 의료장비 수요 급증 때문
- 향후에도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전기차 등 신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 세계 무역 내 중국의 비중이 확대될 전망. 다만 이는 중국의 수출 의존도를 심화시켜 경제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

■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 가속화, 공급 병목 및 원자재 시장 혼란 등에 기인 - WSJ

(U.S. Companies on Pace to Bring Home Record Number of Overseas Jobs)

■ 미국 투자자의 성장주 매입 확대, 금리와 인플레이션 전망 변화를 반영 - Financial Times

(Investors pivot from value stocks as recession fears 'haunt' markets)

■ 중국과 여타 신흥국 간 주가의 비동조화, 중국 경제성장 등으로 완화 예상 - 블룸버그

(China's Hyped Decoupling From Emerging Markets May Prove a Bli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